

배포일시	2020. 2. 3.(월) 17:30 (총 3매)		보도시점	<b>즉 시</b>	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 예보관 이봉수	전화번호	042-863-0367

**대전·세종·충남 4일 오후 눈, 5~6일 강추위**

- 4일 오후(18시)부터 밤(24시)까지 1~5cm 눈, 5일 새벽 눈 날림
- 눈 그친 뒤 5~6일 영하 10도 내외 강추위



[ 2월 4일 밤~5일 아침]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

## [ 추위 전망 ]

- 5일(수)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들어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, 6일(목)까지 강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- 지상 부근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, 대기 상공 5km 부근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까지 남하하면서, 5일 아침 최저기온이 대전 영하 8도, 세종 영하 10도 등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으며,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.
  - 또한, 4일에 비해 기온이 3~9도 낮아지는 가운데, 바람이 시속 10~15km(초속 3~4m)로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,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한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 - 4일 밤 대전·세종·충남지역에 눈이 그치고 난 후,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  
- 이번 추위는 7일(금)까지 이어진 후, 점차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.

## [ 강수 전망 ]

□ 한편, 4일은 대륙고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와 이동성고기압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발해만 부근에서 충돌하여 만들어진 **눈구름**이 **대전·세종·충남지역에 4일 오후부터~밤까지 영향을** 주겠습니다.

\* 예상 강수량(4일 오후(18시) ~ 밤(24시)까지)

- 대전·세종·충남: 5mm 미만

\* 예상 적설(4일 오후(18시) ~ 밤(24시)까지)

- 대전·세종·충남: 1~5cm

## [ 강풍 및 풍랑 전망 ]

□ (강풍) 4일 오후~5일에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0~45km (초속 8~13m)의 강한 바람, 대전·세종·충남내륙에서는 시속 15~30km (초속 4~9m)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,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□ (풍랑)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, 5~6일에는 서해중부먼바다에서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점차 강해지겠고 물결도 2.0~4.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,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.